

## COVID-19 시한폭탄 해외입국자 관리 비상

지방자치단체 격리조치 한계  
정부차원 대응방안 서둘러야

타 시·도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이 현저히 낮았던 광주·전남에 해외 입국자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하루새 8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을 차단할 수 없겠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광주·전남에서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37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8명은 광주 4명, 전남 4명이며, 지역 일일 최대 확진자 수로 집계됐다.

광주 신규 확진자 4명 중 3명은 영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격리생활 중 진단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른 한 명도 스페인에 다녀온 딸을 만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던 광주 17번째 환자의 밀접접촉자로 격리기간 중에 확정판정을 받았다.

전남 신규 확진자 4명 중 3명도 영국에서 입국했다. 나머지 한 명은 서울 구로만민교회 신자인 기존 확진자의 어머니다.

이처럼 해외입국자들로 인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연일 이어지면서 주요 감염 원인이 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보다 높은 강도의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해외입국자들의 방문 자체를 막을 수 없어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광주 누적 확진자 24명의 감염 경로는 해외 유입 관련자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신천지 예배 관련 9명, 원인불명 1명 등이다. 전남 확진자도 해외입국자가 7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14명)의 절반을 차지하며, 해외 입국 관리대상자들은 앞으로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의 경우 유럽 입국자 의무격리 정부 지침 적용 시점인 3월 22일 이후 133명이 들어왔고 미국은 3월 27일 이후 97명이 들어왔다.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545명

이 입국했다고 신고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전남에도 지난달 29일 기준 해외입국자는 유럽 81명, 미국 19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70명은 음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검사 중이거나 대기 중인데, 마찬가지로 유럽과 미국 이외 지역 입국자들은 별도 집계조차 없는 상태다.

해외입국자들로 인한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이처럼 현실화하자 광주시와 전남도는 고강도 대책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2주 자가격리 방침을 내렸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강제격리 조치까지 발동했다.

광주시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해 3일간 의무격리하고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그 밖의 해외 입국자들은 귀가 후 2주간 의무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한 발 더 나가 모든 해외입국자를 사흘간 강제 격리한다. 해외입국자 전원을 도에서 관리하는 생활치료센터에 3일간 격리해 전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까지 내렸다. 강제격리 중 양성판정이 나오면 병원으로 이송하고 음성 판정인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피해 귀국하고 있는 교민과 유학생 등 해외 입국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방문 자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 분석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상황이 엄중해져도 일부 입국자들이 생활치료센터 격리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귀국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으려는 행정명령인데도 공동체의 안전보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행동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지자체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영범·허성은 기자



### 가계긴급생계비 받을 수 있을까

1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지하 민방위 교육장에서 직원들이 '가계긴급생계비 안내문'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긴급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자체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 북구청 제공

## 총선 공식 선거전 오늘 개막...민주 vs 민생 '텃밭 경쟁' 돌입

선대위 출범식 대신 국립5·18민주묘지 찾아 조용한 출범식

코로나19 확산 우려 대면 접촉 자제...온라인 선거운동 주력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2일부터 2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에서 텃밭 탈환을 노리고, 현역 의원이 다수 포진한 민생당은 수성을 다짐하며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친다.

이 밖에 정의당과 미래통합당 등 다른 야당들도 초반 기선 제압을 위해 표심 공략에 나섰다.

1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는 8개 선거구에 42명이 등록을 마쳤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명, 민생당 7명, 정의당 6명, 민중당 3명, 미래통합당 2명 등이다.

광주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경합하는 전국적인 상황과 달리 민주당과 민생당, 무소속 후보간 경쟁이 치열하다.

현역 국회의원이 1명뿐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힘을 실어달라며 지지

를 호소하고 있고, 민생당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역 의원들은 '인물·민주개혁 정권 창출론'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중당 등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정당(비례) 득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남 호남권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한 데 이어 2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출마 후보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연다.

민생당 광주시당도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일 광주 북구 운동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출범식 대신 출범식을 개최한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출마 후보와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출범식을 갖는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출범식을 연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에 올린 국민의당은 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대신했다.

기자회견에는 선대위원장인 권은희 의원과 조경관 전남대 교수가 참석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출발, 전국 중주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정당 비례 투표율 모아 원내교섭단체 수준의 의석(20석)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두 거대 정당 사이에서 갈등이 아닌 협상과 합의를 하는 제3당이 되려고 한다. 이념에 매이지 않는 중도 실용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각 후보들은 선거사무소에서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 출범식을 열거나 온라인으로 대신하고 있다.

후보들은 대면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온라인 선거 운동에 주력하며 '조용하게' 선거 운동을 한다는 방침이다.

유권자를 직접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약속을 자제하는 비대면 접촉 방식의 선거운동을 한다.

신봉우·표혜덕 기자

- ⚙️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 ⚙️ **석면해체·제거업**

## 신원건설산업(주)

###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061)333-6832 FAX: 061)334-770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